

## 우리의 현황을 바로 보는 축산농가의 합의가 필요하다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UR협상타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 농업의 방향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이 2월 1일 농민대회로 표출되었다.

UR협상 자체를 재협상하라는 농민들의 주장과 재협상 불가라는 정부의 주장이 맞서 있다.

돼지의 경우 지금 수입개방해도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과 수입하면 끝장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은 현실을 보는 눈과 위치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UR대책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농민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정책이 아니고 농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는 시발점부터 크게 다르다.

전자가 민주적이라면 후자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다. 축산농민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요구하는데, 정부는 없애는 것보다 우리가 알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여야 모든 정당들이 축산생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주장

하는 데도, 다시 말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어느 부서에서 반대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UR대책은 이런 상황에서 사상누각이 될 수 밖에 없다.

농어촌 발전을 위한 농발위가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다면 훨씬 쉽게 풀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요즘음 분위기가 썰렁한 것을 비유해서 “여기는 릴리함메르”라는 유행어가 있다. 농촌이 썰렁하지 않고 따뜻한 남쪽나라로 만드는 작업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흔히 약소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느니, 혹은 돈이 없다는 등 불가항력이라는 논리를 펼 때가 많다.

그러나 최근 매일 TV나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IAEA나 GATT 등은 UN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원국도 아니며 가장 많은 UN 기구를 유치한 스위스의 비밀은 무엇인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여야 모든 정당들이  
축산생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주장하는데도, 다시 말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어느 부서에서 반대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UR대책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언어도 각기 다른 데도 국론이 통일되고 자원도 별로 없으면서도 세계 최고의 GNP를 자랑하는 잘사는 나라가 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언어가 같고 단일민족이면서 농업을 보는 시각과 해결하는 방안이 정반대로 의견통합이 안 되는 우리로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다.

그들이 독수리처럼 먹이를 사냥하는 적극성이 있다면 우리는 까마귀처럼 남이 사냥한 전리품을 노리는 차이이다. 그들이 개미처럼 협력하며 열심히 일한다면 우리는 개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개는 뚜껑을 덮을 필요가 없다. 서로 잡아내리기 때문에 기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각국들이 GATT에 최종이행계획서 제출을 미루고 있으며 겨우 20여개국만 제출한 상황이다.

최고기를 '95년도에 5,000톤을 더 구입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간에 무역마찰이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처럼 약소국도 쌀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이 슈퍼 301조를 부활해서 역시 자국시장 보호를 계속 강화하고 국내산업보호와 고용확대를 위하여 환경, 덤핑, 지적소유권, 인권문제 등

각종 방법으로 수입장벽을 높이고, EU나 일본에는 역할분담과 협력을 요구하고 우리나라 등에는 계속 개방과 견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입장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정부나 대기업들이 UR협상이 타결되면 농업서비스부문 등에서는 불리하지만 수출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익이라는 논리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에는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UR협상 타결로 미국, EU, 일본 등이 혜택을 입고, 개도국 그 중에도 한국이 가장 큰 피해국가라는 평가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는 현실을 바로 알리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양축농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납득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하여야 한다.

신토불이(身土不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국제경쟁력 향상, 뭉치면 산다, 농업의 수출산업화, 생산비 절감만이 살길이다 등의 구호만으로는 UR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서**